

# 한우 개량 이끌 국가대표 씨수소 선발

### 농진청, 한우 보증씨수소 20마리 뽑아... 2023년 상·하반기 총 43마리 선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개량협회의 한우분과위원회를 열고 새해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20마리를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에 뽑힌 보증씨수소는 총 43마리로 2022년에 선발한 31마리보다 12마리가 더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반기별로 후보씨수소 30여 마리 가운데 유전능력 평가 결과가 우수한 15마리 내외로 한우 보증씨수소를 선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립축산식품부 2023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15위 안에 들지 못하고 탈락하는 후보씨수소 중에서 현재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보증씨수소보다 유전능력 선발지수가 높은 개체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5마리가 유전능력 우수 개체로 추가 선발됨에 따라 이미 보증씨수소로 선발돼 정액이 판매되고 있지만, 유전능력이 낮은 5마

리는 6개월 이내에 판매 정액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유전능력은 2023년 상반기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보다 평균 도체중은 4.25kg 더 많이 나가고, 등삼단면적은 0.77cm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하반기 선발 보증씨수소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축산소식→공지사항)에서 2월부터 확인할 수 있

다. 새로운 씨수소 정액도 2월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판매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병호 과장은 "기존 유전능력이 낮은 보증씨수소는 도태되고, 유전능력이 높은 보증씨수소가 많아져 농가의 씨수소 정액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가에서 보유한 암소 능력을 감안해 다양한 보증씨수소 정액을 사용하면 개량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김욱기기자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은행에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 '인정'

### 전주시, 전북신보·전북은행에 표창 수여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전주 시장실에서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의 경제위기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은행에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은행은 지난해 전주시와 함께 추진한 전주 희망드림 특별보증'을 통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면서 지역경제 발전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 해소 등에 기여했다.

특별보증 사업은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전주 시 및 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금

융기관에서 경영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전북은행과 함께 출연해 총 1000억원의 재정 지원을 완료했지만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민생 회복을 위해 지원 규모를 예정된 200억원에서 500억원 늘어난 7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업력 3개월 이상인 개인신용 평점 595점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이다. 시는 해당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김욱기 기자

###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 혁신적인 마음으로 임할 것"

#### 농어촌공 새만금사업단

#### 김동인 20대 단장 취임

제20대 김동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이 2일 취임했다. 김 신임 단장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받는 새만금사업에 단장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 "설계에서 완공까지 순수 우리 기술로 완공된 세계최장 새만금방조제를 시작으로 농생명용지, 산업단지 등이 성공적 추진되고 있다"면서 "공사현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마음으로 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 경영 강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직장 조성 등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진안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농업토목전공(학사), 전북대학교 대학원(석사) 토목전공 건국대학교 대학원(박사) 사회환경시스템공학을 졸업하고 1995년 공사에 입사해 전북 지역본부 무진장지사장 및 해외사업처장 등을 역임했다.

/김재=곽태기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안전하고 편리한 생산 지원을 통해 100년 농협 만들 것'

###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농업현장 방문 올해 공식 업무 돌입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신년을 맞아 2일 농업인에게 편안한 영농환경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바른 먹거리를 제공해 더 칭찬받는 전북농협을 만들기 위해 임실치즈농협의 치즈 가공장을 방문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 수입치즈 및 대기업과 차별을 둔 다양한 치즈 개발로 지역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전국 유일 치즈농협인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이창식) 가공공장 시설을 둘러보며 신년 첫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김 본부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가공품 마케팅 방안과 히트 상품인 임실치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사항 등을 확인했다. 더불어 기부자가 상품을 받아 볼 때 농업인과 농협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특화된 제품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 국내 낙농산업에 기여한 전 임직원들의 노력에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전북지역 가공

공장의 우수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전북농협은 신년을 맞아 2일 농업인에게 편안한 영농환경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바른 먹거리를 제공해 더 칭찬받는 전북농협을 만들기 위해 임실치즈농협의 치즈 가공장을 방문했다.

## 전기안전공사, 목욕탕 등 취약설비 특별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취약설비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월 중 특별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세종 목욕탕 감전사고와 팔달신시장 도봉구 아파트 화재 등 전기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공사는 인파가 집중되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목욕탕, 수영장 6,808건의 전수점검, 전봉

시장 약 1만3,000개소와 전기설비가 노후되어 재해에 취약한 공동주택 9만4,000여 세대 총 11만호에 대해 설 연휴 전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물기 및 습기로 인해 부식이 심한 목욕탕과 수영장에 대해서는 전기설비 관리상태, 노후화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욱기기자



취약설비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

## K-푸드 수출 국정과제 동력 확보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조6642억원 규모 정부 재정사업 추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총 2조 6,642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대폭 증가했던 지난해 재정사업 예산 2,255,782억 원 보다 3.3%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며,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중점사업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수급안정사업'에 1조 3,608억원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운영과 농축산물 합인지원 등 유통조성사업'에 3,611억원 △농수산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개척 등 '수출진흥사업'에 7,208억원 △푸드테크 산업 육성과 전통식품 육성 등 '식품산업 육성사업' 등에 2,215억 원이다.

특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산

밀·콩 비축에 1,591억원을 투입하고, 가루쌀 제품 개발에 84억원, 국산 밀 가공 확대에 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예산을 전년보다 50억원 증액한 총 104억원을 투입하고, 공공급식통합플랫폼 고도화 등을 위해 46억원을 투입한다.

이뿐만 아니라, 對유럽 농수산식품 수출 강화를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사 신설 예산 6억원을 확보했다. 수출물류비 폐지에 적극 대응코자 수출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328억원, 전문생산단지육성 82억원 등 총 481억 원을 지원해 K-푸드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재훈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